

제10강 포로 귀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서는 무조건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

포로 귀환기의 기록을 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었다.

제1차 귀환	주전 537년
제2차 귀환	주전 458년
제3차 귀환	주전 444년

1 성전 재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의 최우선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1) 이방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주전 538년에 말씀의 성취(렘 25:12-13)를 위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귀환령을 내리게 하시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스 1:1-3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니엘(주전 605-536년 사역)은 고레스 3년까지 활동했는데(단 1:1-6, 21, 6:28, 10:1), 단 1:21에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기록한 것은, 그 시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고레스의 귀환령 발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단 6:28 이 다니엘이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 유다 백성을 감동하신 하나님

제1차 귀환자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스 1: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코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 건축을 사모한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다(시 11:4, 합 2:20).

귀환자들은 주전 536년부터 성전건축을 시작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재개되어 주전 516년 마침내 완공되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을 각성시키심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셨다.

학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스 6:14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필역하되



3)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던 것은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신 것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바벨론 침공 이후 구약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렘 3:15-16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16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변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해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큰 것이다.

학 2: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9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벧전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이를 때 만국은 진동하게 된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온 예루살렘이 진동했고(마 2:3), 재림하실 때 다시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벧후 3:10).

히 12:26-28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이 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28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2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제3차 귀환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고 개혁과 부흥운동을 통해 성결을 회복하도록 해주셨다.

느 1:8-9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흘을 것이요 9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찌라도 내가 거기 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 2:17-18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회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18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 하나님이 이루신 성벽 재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어 12문을 중심으로 재건하였다.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 느헤미야와 백성은 병기를 잡고 대비하며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

느 4: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백성의 마음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느 4: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주전 444년 6월 25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됨으로 국가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느 6:15-16 성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열둘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16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2)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읍 예루살렘의 회복

성벽 공사 후 족보 정리와 율법 강론, 초막절 준수, 거국적 회개와 언약 갱신이 있는 후 거주지를 재배치함으로 영육간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느 12:27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낙성식을 거행하기 전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케 하고, 백성과 백성이 거하는 성의 성문과 성벽의 정결 예식을 행했다. 이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의 마음뿐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까지 뿌려져 정결케 해주실 것을 보여준다(히 9:12, 19-22).

느 12: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서로 반대방향으로 행진하는 독특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었다.

느 12: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성 위로 향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떼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 12:38 감사 찬송하는 다른 떼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뒷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느 12:43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벽 재건으로 언약 신앙 국가 체제가 완성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시 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 26:1-3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관을 삼으시리로다 2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찌어다 3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루살렘이 전 우주의 영적 중심지가 된다(사 4:5-6).

낙성식은 성전을 지었을 때 하는 것인데, 성읍을 두르는 성곽에 대해 봉헌식을 한 것을 볼 때, 예루살렘성 전체를 성전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성, 시온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구속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종말에 새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만국이 그리로 들어오게 된다(사 2:2-3).

렘 3: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사 60:13-14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3 공동체 회복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영적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유대 민족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죄악이 쌓이고 있었다. 이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제3차 귀환 시기까지 말씀 중심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나갔다.

1)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스 7: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스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바사에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했다(참고 히 11:24-25).

바벨론 출생자인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에서도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율법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귀환의 소망의 근거였다.

에스라를 통해 이 시기에 구약성경이 다 정리되었고, 마지막으로 역대기를 썼는데, 아담부터 귀환자들까지의 족보를 통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해주었다.

2) 족보 성별

역대기 1-9장의 족보 중 9장,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1차 귀환자들, 2차 귀환자들, 성벽 공사 참여자들, 예루살렘 거주자들, 언약에 인친 자들 등 족보와 명단들이 여러 개 기록돼 있다.

이 족보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언약을 계승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족보를 개혁했다.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자들을 제외시키고, 이방 여인과 결혼으로 혼잡된 문제를 철저한 회개와 말씀 중심으로 해결해 나갔다.

스 2:59-63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0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육백 오십 이명이요 61제사장 중에는 하비아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62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63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리와 동심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스 10:16-17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시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 과정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일이었다.

느 7:5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계대로 계수하게 하시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계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소속’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잘 지켜야 한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 율법책을 통한 신앙 부흥

하나님께서서는 성벽이 완공되자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다.

느 8:1-3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2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이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했다.

느 8:5-8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라 6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느 8:9-10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느니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힘을 얻는다.

4) 초막절 준수

백성이 말씀을 통해 초막절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이래 약 960년 만에 처음으로 규례대로(레 23:39-43) 초막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하였다.

느 8:14-17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찌니라 하였고 15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 17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특히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반드시 전 국민과 외국인들까지 모여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한다.

신 31:10-13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은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찌니 12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찌니라

5) 언약에 인침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 운동으로 거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 언약 갱신으로 이어졌다.

느 9:1-2 그 달 이십 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 9:38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출애굽 후 시내산 언약을 통해 선민으로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한 것처럼, 제2의 출애굽 후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도장을 찍어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언약에 인치고 마지막 다짐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고백이었다.

올바른 예배와 성전 관리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다.

느 10:39 ...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해당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마지막 준비를 시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단절의 위기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 종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사 37:32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욥 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